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 (1)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 밤 주 탄생하신 이 날 거룩한 날이여
- (2)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 (3)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 (1)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불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불드네
- (2)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불드네
- (3)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불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불드네
- (4)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불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불드네
<후렴> 나를 불드네 나를 불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불드네

12월 11일 (화) 기도 담당 : 고성호 집사

2018년 12월 10일 (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101장
기도	이광현 집사
성경봉독	시편 127:1-5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74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시편 127:1-5>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2월 10일 (월)

구원의 하나님! 비록 혹한의 계절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계절임을 감사하며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만사 요란하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 또한 죄악스럽고 무겁기 그지없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학업,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침범한 건강, 경제, 기타 각양의 문제들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성전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의 입당준비도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입당하는 그 날, 새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시대에 새문안 제단에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께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실행되어 몸 된 새문안교회가 더욱 흥왕케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 온 땅이 혼란과 피곤함으로 지쳐있사오니,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겨울이 무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겨울도 따뜻할 수 있음을 경험할 사랑의 손길들을 모아 주옵소서.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